

OHEANA



www.pccc.wmu.edu Issu Date Jan. 2024



Table Of
CONTENTS



04_ CHRISTIAN EDUCATION
COLUMN

기독교교육 칼럼

06_ CHRISTIAN COACHING
COLUMN FOR PARENT-
ING AND CAREGIVING

크리스천 코칭 칼럼

08_ MY UTMOST FOR HIS
HIGHEST

부모가 자녀에게 한글로 읽어주는 묵상의 글

10_ PRAYER
FOR CHILDREN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도문

12_ KOREAN CULTURE,
AMERICAN CULTURE,
AND GLOBAL CULTURE

한국문화, 미국문화, 세계문화.

I4_

PRE-WORSHIP ACTIVITIES

가정예배 시작 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I6_

WEEKLY BULLETIN OF FAMILY WORSHIP

가정예배 순서지(1월, 2월)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

PCCE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파하고 실현하는 기관으로 릴리재단(Lilly Endowment)과 World Mission University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PCCE는 미국내 한인교회와 한인가정의 기독교교육 그리고 1.5세와 2세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예배와 세대간 예배의 보급을 통해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릇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크리스천 부모교육도 실시합니다.



각인(刻印)

신 앙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교육 하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 그것도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까요? 정작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일방적으로 교회에만 의탁하는 것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터전은 바로 부모이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앙교육의 가장 큰 장은 부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앙교육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유기적이란 것은 어린 자녀는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와 삶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성품 안에 자녀의 미래의 성품이 들어있고, 부모의 모든 미덕과 신앙과 기도와 약속들이 흘러서 그 자녀의 것이 됩니다. 구약에서 할례의 의미가 그런 것이고, 유아세례의 의미도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유기적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훈계나 지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의해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이면 하나님 아버지도 늘 자신을 책망하고 별주는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자라간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미지화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각인현상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각인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이 각인현상은 초등학교 연령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 누가 뭐라해도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존재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늘 베푸는 사람



이면 자녀도 그러한 삶이 각인되어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반대로 부모가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자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됩니다. 더구나 부모가 언행에 있어 공격성을 보이거나 폭력성이 있으면 이 각인현상이 그대로 아이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각인이라는 단어는 '새기다' '도장을 찍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부모의 태도나 행동이 이미지가 되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바로 그것은 자녀들의 인격과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모야말로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최윤정 교수



로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이제 좋은이는 정말 큰일났다! 이제 좋은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지는 바보가 되어 버릴 것이다" 하는 눈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보다 더 확실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영락없이 따라 합니다. 말하는 것, 버릇, 생각까지도 부모와 닮은꼴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한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까지도 아이들은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한 아무리 유치원에서 별 것을 다 배운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웃음이 넘치는 가정, 언제나 사랑과 진실과 이해와 격려와 감사가 있는 부모,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보는 부모, 겸손히 섬기고 나누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자란 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부는 좋은이를 학원에 보내 셈과 한글과 영어와 무슨 영재교육같은 것을 배우게 하는 대신에 집에서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 이기는 하겠으나 저희 부부는 한번 애를 써 보려고 합니다.

햇별같은 이야기
최용우

어느 택시운전 기사님은 아이들을 유치원이고 학원이고 일절 안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교육, 오늘의 부모들이나 오늘의 세상은 오로지 외적 물적 양적 '발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그런 세상이 싫어서 아이들을 일절 학원에 안 보냈다고 합니다.

집앞까지 유치원차가 오니까 아이는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갔다가 끝나면 또 차가 실어다 주니 집앞에서 내려 집으로 쪽 들어갑니다. 혼자서는 길을 걸을 줄도 모르고, 혼자서는 운동화 끈도 매지 못하고,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말하고 숫자를 세고 한글을 줄줄 읽는다고 마치 천재라도 난 것처럼 법석을 떠는 부모들이 그렇게도 가소롭기 그지없다 하십니다.

큰딸아이가 벌써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보내지 않기



통하는 부모

부 모와 자녀 모두 잘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대화 후에 남는 건 상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난 청소년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맨날 밥 먹었는지만 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로 표현되는 엄마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죠. 이렇듯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통하게 됩니다. 아니면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도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움 없이 커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그러나 통하는 부모가 되려면 그러한 불안,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 자신의 불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은 잔소리는 기분나쁜 것이고, 조언은 더 기분나쁜 거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통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줄 공간이 있는지부터 살펴



야 합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부정적 감정, 생각들을 심호흡하며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는 말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긍정적 순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하는 부모로서의 마음밭이 만들어집니다.

통하는 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만일 아이가 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또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때 소통은 잘 이루어집니다. 자녀와 통하는 가정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고, 허튼 소리라도 받아주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대화하며 정말 최선의 것을 함께 찾아가고,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통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미 국의 8대 대통령 마틴 반 뷰렌(Martin Van Buren)은 자신이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 주시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

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마틴 반 뷰렌은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자녀의 모범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는 '양육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길러가면서 부모 또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녀와 소통하며 훌륭하게 양육할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My Utmost for His Highest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 13:36)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 21:19)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마 4:19),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따라오라"는 말씀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21:18)

이 두 부르심의 사이에는 베드로가 저주 및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마26:69-75)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

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 20:22).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 지표가 생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의미

"거기서 베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8)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들을 세어보며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그 축복을 돌려드리십시오. 만일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쌓아놓으면, 마치 쌓아놓은 만다가 썩었듯이 그 축복은 당신을 영적으로 메마르고 썩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 영적 축복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드시도록 그 축복은 주님께 예배로 돌려져야 합니다.

베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반면 아이(Ai)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둘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적 활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잘못된 것

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삶의 덧이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잡음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예배의 장막을 치십시오. 영적인 삶에는 세 가지 단계, 곧 예배, 기다림, 봉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개구리처럼 예배에서 기다림으로, 기다림에서 봉사로 점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함께 있었었습니다. 주님은 급하지 않으셨으며 그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훈련입니다. 한번에 이 훈련을 다 마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Prayer for Children

예배로 하나되는 가정

주님, 우리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하소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길지라도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예배 시간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케 하소서.

우리의 삶과 앞길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께 제단을 쌓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을 저주하는 자의 손 앞에서 주님 간섭하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시련이 오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서원제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와 같이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잇게 하시고, 나 000의 하나님, 그리고 000의 하나님, 000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6-7)

Korean Traditional Culture

상부상조의 전통 '두레'

우리의 전통문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가운데 두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레는 농촌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만든 공동노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씨족공동 사회에 기원을 둔 두레는 모내기, 김매기 등 일시적이고 많은 사람의 품이 요구되는 농경에 마을의 성년남자 전원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강제성을 띤 조직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인 행수를 비롯한 임원이 있어서 조직과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일의 시작과 진행에 농약이 동원되었으며 일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노고를 잊고 결속을 다짐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두레에 의한 공동노동은 모내기, 물대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 등 경작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많은 품이 요구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습니다.

두레는 엄격한 규율 아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작업에 앞서 수총각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썼거나 용을 그린 농기(깃발)를 논두렁에 세우고 난 뒤, 나팔을 신호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업과정뿐만 아니라 식에서도 일사불란한 단체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끝마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직 식사 중인데 먼저 눕는다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작업시간은 행수(우두머리)가 정하는데, 시계가 없을 때는 구멍 뚫린 초롱에 물을 채워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두레를 운영하는 것과 그 기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동회연(共同會宴)', 즉 '공동잔치'였습니다. 공동회연에서는 굿이나 놀이 등을 하였습니다. 대체로 김매기를 마친 뒤 공동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고 농약에 맞추어 여러 가지 연희를 곁들여 뛰고 놀면서 1년의 노고를 잊고 결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레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농약입니다. 농약 있는 두레와 농약이 없는 두레가 있는데, 농약 있는 두레의 경우 작업을 하러 갈 때 농기를 앞세우고 장구, 팽과리, 북을 풍물재비들이 치며 나아갑니다.



김매 때를 장구재비 혼자만 소리(노래)를 하면서 흥겹게 풍물을 잡습니다. 이처럼 농약은 노동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고 더욱 힘을 내게 하며 협동심을 북돋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토지의 사유화의 발달과 도시화 등으로 본래 모습의 두레는 사라지고 일부 변형적인 모습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상부상조 전통과 정신은 현대사회 공동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상부상조의 정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전통 놀이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제기를 가지고 발로 차는 놀이입니다. 제기는 엽전이나 쇠붙이를 종이나 형겅에 짠 다음 끝을 여러 갈래로 늘여 너풀거리게 한 장난감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아이들이 밖에서 즐깁니다.

제기차기는 옛날의 공차기인 '축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더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변하여 '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쇠붙이에 플라스틱을 합쳐 만든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기차기 : 이억영 (출처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제기차기는 제기를 발로 차는 전통놀이로 주로 겨울에서 정초에 걸쳐 즐겨왔다. 제기는 엽전이나 쇠붙이를 얇은 한지로 싸고 종이의 두 끝을 한 구멍의 같은 방향으로 꿰어서 그 끝을 갈래갈래 찢어서 만든다. 형겅에 흙이나 돌을 싸서 잡아매고 꿩의 꼬지깃을 꽂아 만들기도 했다. 제기는 고대의 공차기인 축국에서 비롯된 놀이다. 제기 또는 제기차기라는 말도 축국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원래 공을 차는 축국을 조선 초기에는 '더기'라고 했다가 18세기 이후 '더기'를 거쳐 '제기'로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을 통해, 한지, 깃털, 풀리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제기를 재현한 현대화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놀이 방법

제기를 띄우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반복해서 발로 찬다.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주 차기도 한다. 제기가 바닥에 닿게 되면 상대방에게 차례가 넘어가며, 한 번에 더 많은 개수를 찬 사람이 승리한다.

제기 멀리 차기 놀이는 상대방이 제기를 던져주면 받아서 차고 누가 더 멀리 차는지를 겨루는 놀이다.

외발 차기



한 발은 땅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 발로만 찬다.

양발 차기



양쪽 발로 한 발씩 한 발씩 번갈아 찬다.

뒷발 차기



발의 방향을 뒤로 가게 하여 찬다.

제기 멀리 차기



상대편이 제기를 던져주면 받아서 차고 누가 더 멀리 차는지를 겨룬다.



03. 레이저 빔 장벽 통과하기

준비물 : 붉은색 털실(많이), 스톱워치, 테이프

1. 집 안의 복도나 통로를 찾으세요. 마땅한 통로가 없다면 의자나 소파, 테이블 등을 양쪽으로 나란히 배치해 통로를 만들 수 있어요.
2. 털실을 자유롭게 거미줄처럼 양쪽을 왕복해가며 타이트하게 붙이되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만드세요.
3. 다 만들었으면 레이저 빔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지 도전해 보세요.
4. 레이저 빔을 건드린 사람은 재도전해 보세요.
5. 누가 가장 빨리 통과했는지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보세요.

레이저 빔에 맞는 사람이 죽게 되듯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그렇지만 매번 동물을 희생시켜야 했으며 그것 또한 일시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의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이었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열렸어요.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레이저빔 장벽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말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04. 주의 이름 부르기 윷놀이

준비물 : 윷, 말판, 말(1~4개)

1.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로마서 10장 13절을 암송하세요.
2. 말판 곳곳에 '죄 항목이 쓰인 수렁'을 정해 주세요. 죄의 경중에 따라 뒤로 한 칸 또는 여러 칸 물러가기로 설정해 주세요.
3. 말판에 두 군데 정도의 '예수님' 자리를 정해주세요. 말이 예수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하나, 둘, 셋'을 외치세요.
4. '하나, 둘, 셋'을 외치자마자 말의 주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을 외치세요. 그러면 말들은 천국(HOME)으로 단번에 들어가요. (만약 외치지 못한다면 기회를 잃게 돼요.)



여러분이 윷놀이를 했을 때에는 '예수님' 찬스가 아니더라도 어렵게 HOME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천국)께 나아갈 수 없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통해 죄용서를 받아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도 했었죠.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죄용서와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자, 모두 함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며 가정예배로 나아갑시다.

01. 사랑받는 하나님 아들

기도 |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 마가복음 1:9~11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나눔 | 1.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11절)
2.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
.....
.....

기도 |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해 주세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2. 겨자씨 비유와 하나님 나라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말씀 | 마가복음 4:30~32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그러나 땅에 심기면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 새들이 쉼 만한 나무로 성장해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 주는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확장될 거예요.

나눔 | 1. 예수님이 작은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31~32절)

2. 작은 일이지만,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작은 겨자씨로 큰 나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작은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게 해 주세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가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3.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도 |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세요.

말씀 | 마가복음 7:24~3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출신 헬라인(그리스 사람)인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거절당한 듯한 상황에서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어요.

나눔 | 1.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는 간청에 예수님이 ‘개’의 비유로 거절하시는 듯하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나요?(28절)

2. 우리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눔 |

기도 | 주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처럼 끈기와 간절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과 도움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4.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제자

기도 |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 | 마가복음 9:33~37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수님이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더 크고 높은 사람이라며 싸운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 나눔** | 1. 서로 “누가 크냐?”라며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은 무엇인가요?(35절)
2.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은 누구며,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힘없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려는 마음을 품고, 저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며 따뜻함을 나누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정

성경이 증거 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소서.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늘 기도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걱정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 000가 학교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세상의 경건치 못한 요구에도 믿음으로서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크신 손으로 도우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들의 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부정과 불의로 재물을 모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서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며 행할 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번창케 하옵소서. 경영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인정받기보단 오직 주님의 은혜로운 손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케 하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orytelling

가족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6.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

기도 | 저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은혜를 주세요.

말씀 | 가복음 11:15~18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에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쓰일 동물을 파는 사람과, 성전세를 위해 돈 바꾸는 사람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나눔** | 1.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7절)
2. 교회는 나에게 어떤 곳인가요? 교회에 가는 나의 마음과 태도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제 이익을 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7.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기도 |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헤아려 보게 해 주세요.

말씀 | 마가복음 12:41~44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성전 뜰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뒤집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보다 얼마 안 되는 동전을 넣은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마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이에요.

나눔 | 1. 예수님은 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 많다고 말씀하셨나요?(44절)
2. 헌금할 때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과부처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 생활을 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자신을 위해 쌓는 기쁨보다 남을 위해 나누는 기쁨을 더 알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8. 최고의 사랑을 드려요

기도 |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마가복음 14:3~9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져와 붓자, 사람들은 여인이 낭비했다며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며, 이 행동이 복음과 함께 전해져 그 여인이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거예요.

나눔 | 1.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4~5절)
(9절)

2. 나는 일상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눔 |

.....

.....

.....

기도 | 주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저희 삶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9. 함께 복음을 전해요

기도 | 하나님, 온 가족이 모여 예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고 저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세요.

말씀 | 마가복음 16:15~18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등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 나눔** | 1.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나타날 놀라운 표적은 무엇인가요?(17~18절)
2.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주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잊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제게 주시고,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삼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P : (213) 388-1000
E : pcce@mail.com
w : www.pcce.wmu.edu

A :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